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Shell linked to upcoming LNG-fuelled VLCC order haul at DSME

대우조선해양의 LNG Dual-fuelled VLCC 10척에 대한 LOI(건조의향서)를 두고 네덜란드의 슈퍼 메이저 Shell사가 발주처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됨.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, Shell사가 대우조선해양의 dock-slot을 확보한 상태이며 척 당 선가는 약 1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Delays to Mozambique LNG newbuilds roll on as yards and owners wait

Total사가 주도하는 Mozambique LNG 프로젝트를 위한 LNG선 17척에 대한 발주가 연 내 성사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됨.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17척에 대한 건조의향서(LOI)를 체결한 지 1년 가량 지났으나 COVID-19와 Mozambique 현지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Total사는 당초 프로젝트 계획을 정상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알려짐. (TradeWinds)

## MSC locks in Seaspan neo-panamax newbuildings on long-term deals

Seaspan이 발주한다고 알려진 Neo-panamax급 컨테이너선 5척의 사용처가 MSC(Mediterranean Shipping Co)라고 보도됨. TradeWinds에 따르면, 12,2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 대하여 MSC-Seaspan 간 18년 장기용선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현대건설기계, 러시아·사우디서 건설장비 415대 수주

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러시아 등 신흥 시장에서 4천만 달러(한화 약 434억원) 규모의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고 9일 밝힘.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러시아에서 대형 굴착기 80대를 포함해 총 345대를 수주했으며,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객사로부터 580만 달러 상당의 굴착기 70대를 수주했다고 보도됨. (연합뉴스)

## LIG넥스원, 방위사업청과 '수중자율기뢰 개발' 계약 체결

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'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'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힘. 계약금액은 약 120억 규모로 2023년까지 '수중자율기뢰탐색체'의 체계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됨. '수중자율기뢰탐색체'는 수중에서 기 계획된 위치로 자율기동하면서 수중에 부설된 기뢰 탐색 및 수중물체에 대한 감시·정찰 임무 수행 등이 가능한 수중 무인이동체를 말함. (파이낸셜뉴스)

## 한국카본, 1,299억원 규모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

한국카본은 삼성중공업과 LNG 수송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공시함. 계약금액은 1,299억678만원이며 이는 2019년 매출 대비 47.51%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됨. (헤럴드경제)